

개그콘서트 900회... 19년 산증인 '개콘보스' 김준호



문재인 대통령에 한마디? “‘개콘’ 나와주세요”

‘이장님’ 코너로 이름 알려 본격 활동 시청률 낮지만 열정 가득 후배들 믿어

KBS 2TV ‘개그콘서트’ 19년 역사의 산증인을 한 명만 꼽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김준호를 외칠 것이다. 그는 1999년 9월 4일 첫 방송부터 지금까지 ‘개콘’을 지켜와 ‘개콘 보스’로도 불린다.

김준호는 ‘개콘’ 900회를 맞아 10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KBS 공채 14기 개그맨’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1회부터 작년 11월까지 계속 달려왔는데 900회 무대에도 서게 되니 가슴이 쩡하다”고 말했다.

그는 1999년 9월 4일 첫 방송도 정확히 기억했다. “‘사바나의 아침’ 코너에서 ‘어리버리’ 캐릭터를 맡았었는데 당시에는 저러는 개그맨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다 2000년대 초반에 ‘이장님’이란 코너로 김준호 이름 석 자가 알려지게 됐고, 그때쯤 동료들과 같이 아이디어를 짜면서 개그란 걸 본격적으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같은 채널의 버라이어티 예능 ‘해피선데이-1박2일’과 ‘개콘’ 중 어느 프로그램에 더 애착이 가느냐는 질문에는 쉽게 답하지 못했다 유머로 마무리했다.

“지금은 ‘개콘’ 무대에서 있으니 ‘개콘’이라고 말하고요. ‘1박2일’에 가면 또 ‘1박2일’이라 하고요. 이래서 제가 별명이 ‘스티브 잡스’ 아닙니까. 하하. ‘개콘’은 19년간 해왔고 ‘1박2일’은 4년 차인데 둘 다 제게는 참 소중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개콘’의 터줏대감으로서 전성기만 못한 시청률도 솔직히 인정했다. 김준호는 “제가 잠시 SBS TV ‘웃찾사’에 갔을 때 ‘개콘’의 시청률이 30%를 돌파했다고 하더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SNS와 케이블 채널을 많이 보는데, 시청자층이 많이 분산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런 현상은 ‘개콘’ 뿐만 아니라 ‘1박2일’ 등 모든 예능이 마찬가지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개콘’은 항상 3~4년을 주기로 시청률이 오르락내리락했다”며 “똥통 뚫어서 아이디어를 짜는 후배들을 보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준호는 결국은 재미있는 개그로 대결해야 한다면서 그를 위해서는 개그맨들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호는 이날 새롭게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KBS 개그맨을 대표해 인사하며 “즉석 섭외”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KBS 여의도 본관 쪽으로 오신다고 해서 편하게 오시라고 전 옆길로 들어왔다”고 너스레를 떨며 “우스은 대통령보다는 우리를 웃겨주는 대통령, ‘개그콘서트’에도 나올 수 있는 대통령이 돼주시길 바란다. 나와주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정치풍자를 하거나 하면 알게 모르게 눈치가 보이는 분위기였는데 앞으로는 선진국의 코미디 프러처럼 당연한 것은 당연하게 개그하는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SBS ‘수상한 파트너’ 지창욱·남지현 출연

“편하지 않은 FUN한 케미 보여 줄 것”

SBS TV가 월화극에서는 범조계의 비리를 겨냥하다니, 수목극에서는 범조계를 배경으로 달콤한 로맨틱 코미디를 선보인다.

‘사임당, 빛의 일기’ 후속으로 10일 밤 10시 첫방송하는 SBS TV ‘수상한 파트너’는 뇌가 색시한 검사 노지욱과 아웃사이더 사법연수원생 은봉희가 미스터리한 사건을 겪으며 서로에게 빠져드는 이야기다.

‘보스를 지켜라’와 ‘내 연애의 모든 것’으로 로맨틱 코미디를 성공시킨 권기영 작가가 대본을 쓴다.

제작진은 10일 “이 드라마는 노지욱과 은봉희의 아주 웃기는 로맨틱 코미디이자, 가슴 ‘싸르르’한 멜로 드라마”라고 소개했다.

이어 “또한 기억상실에 걸린 살인자가 등장하는 스릴러이자, 두 주인공이 편견 가득한 세상과 싸우며 화해하며 성장하는 성장기”라고 덧붙였다.

지창욱은 지금껏 남성이 넘치는 액션이나 묵직한 드라마에 출연해왔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코미디를 한껏 강조한 역할을 통해 변신을 꾀한다. 노지욱은 평생 범죄와 싸우

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못다 한 꿈을 이루기 위해 검사가 된 인물이다. 머리가 좋아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는 기소 성공률 1위의 잘 나가는 검사다. 그런 그가 은봉희를 만나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다.

지창욱은 “노지욱은 까칠하지만 따뜻한 이 있는 검사”라며 “재미있고, 일과달콤한 모습도 많이 보여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욱과 봉희의 만남이 코믹하면서도 어떤 미스터리한 사건 때문에 긴장감을 놓을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난해 ‘쇼피킹 루이’에서 순박한 산골 처녀 ‘고복실’이었던 남지현은 이번에는 사법연수원생 ‘은봉희’가 됐다. 어린 시절 태권도 유소년 대표였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선수 자격이 박탈된 은봉희는 오로지 독기와 ‘강’으로 고시 공부를 시작해 불가능해보였던 사법연수원생이 된다.

남지현은 “은봉희는 솔직담백하고 씩씩한, 그리고 항상 밝은 에너지가 가득한 캐릭터”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various TV programs for the date May 11th.

Table with 4 columns: Time, Program Name, Description, and Time, Program Name, Description. Lists various TV programs for the date May 11th, including EBS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1일(음 4월 16일 戊戌). A horoscope section with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 for the day.